

# 반짝 활황 뒤 발길 뚝... '텅' 기타 거리

광주 남구, 2017~18년 사직동 통기타 거리 골목활성화 사업  
지자체 예산 끊기고 관리 소홀...점포 32곳 중 10여 곳만 남아  
남구 "사업 종료 후 관리 주체는 상인...활성화 방안 협의할 것"

전국 지역골목상권 활성화 우수사례로 꼽혔던 광주 남구 '사직동 통기타 거리'가 관리가 되지 않아 찾은 이들의 발길이 끊기고 있다. 지자체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바람에 겨우 되찾았던 옛 명성을 다시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1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 남구 사직동 통기타 거리는 적막만이 가득했다. 광주 전역에서 사직동 골목으로 올라가는 170m 골목에 조성된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는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은 듯 굳게 닫힌 가게가 많았고, 가게 유리문에는 수년 전 진행한 빛바랜 공연 포스터와 플래카드가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통기타 거리는 광주 포크 음악의 중심지로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970-1980년대 '이름 모를 소녀'와 '하얀 나비' 등으로 유명한 김정호는 사직동 통기타 거리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싱어송라이터다. 하지만 노래방 문화의 등장과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이에 상인들을 중심으로 거리를 되살려보자는 공감대 형성과 지자체의 지원이 더해졌다. 지난 2017년에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을 계기로 옛 명성을 되찾는 듯 했다. 남구가 10여억원을 들여 사업을 지원한 덕분에 지난 2019년에는 기존 24곳이었던 라이브 카페 등 점포가 32곳으로 늘고 방문객도 900명에서 4만 5000명까지 늘었다. 5년이 지난 현재 남아있는 점포는 14개에 불과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는 10곳이 되지 않는다. 이 곳에서 15년째 라이브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주권기(56)씨는 "처음 라이브카페를 열었을 때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요즘에는 하루에 한 테이블 있을까 말까 한다. 장사가 너무 안 되다보니 대구 김광석 거리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업주 A씨는 "골목경제활성화 사업이 진행됐던 7년 전과 비교하면 손님도 3분의 1로 줄었고 매출은 절반 이상 떨어졌다"며 "통기타



12일 광주 남구 사직동 통기타 거리 골목이 오가는 시민 없이 행하다. /김진수 기자 jeans@

소리와 가수를 좋아하는 매니아 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상인들은 남구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구가 주요 사업으로 지원할 때는 정부 우수사례로도 뽑혔지만

이제 젊은 방문객들이 많은 양림동 쪽으로만 지원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상인은 "자치단체는 상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서 "입구에 조형물만 세워주고 간판

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남구문화관광과와 도시재생과, 지역경제과 모두 관리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업 종료 이후 거리의 관리 주체는 상인들이라는 것이다. 구는 이 거리에 남아있는 점포수와 방문객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본래 민간이 모여 조성된 거리인 만큼 관리 주체는 상가 주인들이고 개개인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만 매출 감소로 투자가 어렵고 통기타 거리의 역사와 가치를 두고 보면 충분히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상인들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통기타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시민들은 통기타 거리의 쇠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40년 전 이곳에서 추억을 쌓은 박찬수(57·나주 혁신도시)씨는 "충장으로 못지 않게 멋있고 유명했던 곳에 발길이 끊기고 있다"고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젊은 층이 상무지구와 첨단으로 유출되면서 통기타 감성을 즐기러 오는 이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사직동에서 살았다는 정모(40)씨는 "옛 세대가 민중가요를 부르며 시대의 아픔을 노래로 승화하고 위로 받았던 추억이 있는 골목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각종 공연도 열려 사람이 많았는데 문을 여는 저녁에도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전남자치경찰, 음주운전 단속강화·암행순찰 운영

취약지 주1회 이상 불시 단속...화물차 이동 단속 부스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목표로, 음주운전 강력 단속 등 교통안전활동 강화 계획과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12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226명이다. 이는 전년인 2022년보다 11.9%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3월부터 연말까지 연중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암행순찰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류·식당 및 유원지 골프장 등 음주 취약 장소에서 주 1회 이상 주야간 불문 일제단속을 하고, 경찰서별로 주 2회 이상 사고 취약 장소에 맞춤형 자체단속을 강화한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최근 정비 불량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야기하는 등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화물차 관련 교통 사망사고

가 80건에 달하고 이는 전년 보다 26건이 증가한 수치다. 사고 발생 원인은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 운전 불이행이 81.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와 전남경찰청은 운전 자료를 기록하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Digital Tacho Graph) 자료를 분석해 위험 운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 구간 10개소를 3월 중 선정, 이동식 단속 부스를 올 상반기에 설치해 중앙선 침범 및 과속 등 화물차 법규 위반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대-한국프라임제약 글로벌대학 30 추진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는 지난 11일 학교 행정관 교육혁신지원실에서 한국프라임제약(회장 김대익)과 글로벌대학 30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대학30 혁신사업 지원과 참여를 비롯해 인적·물적 자원 연계 특성화분야 공동연구 및 프로젝트 운영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대학 산학 캠퍼스를 통한 실무인재 양성, 기타 상호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광주대 김동진 총장은 "전통과 역량을 갖춘 홀

륭한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기업의 고민을 듣고, 기업이 정신을 배워 학생들이 전문역량을 쌓고 전문영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프라임제약 김대익 회장은 "산학연계 프로젝트와 실험·실습 교류 등 학생들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대학은 재학생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윈윈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2023 수능 영어 23번 논란' 법정가나

시민단체, 수험생 손해 소송 추진

사교육 업체-교원 간 문항 거래를 통해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이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시민단체가 수험생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 등 100여개 시민단체는 수능 영어 23번 지문과 똑같

은 지문으로 사설 모의고사 문항을 만든 입시업체와 해당 강사 조모씨, 조씨와 공모한 교사·교수를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시험을 본 수험생 44만4887명을 대리해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 손해배상 청구 규모가 8조9000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2022년 11월 시행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

번은 캐스 스티어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출간한 'Too Much Information'(TMI)에서 발췌한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3점짜리 문항이었다. 그런데 수능 직후 이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의 유명 강사 조씨가 제공한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한 문장이 동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 EBS 감사본에 해당 문항을 만든 교원 A씨와 친분이 있는 교원 B씨가 조씨에게 이 문항을 공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EBS 교재 감수에 참여한 대학교수 C씨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활동하며 해당 지문을 이용해 수능 23번 문항을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